

## 교육문법으로서의 한국어 유사 문법 연구<sup>\*</sup>

유해준<sup>\*\*</sup>

### 차례

1. 서론
2. 한국어 교육과 교육문법의 개념
3. 한국어 교재의 문법 제시 형태
4. 한국어 유사 문법의 제시 형태
5. 결론

### 【국문 초록】

기존의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를 보면 한국어 교육 문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논의로 정리가 된다. 첫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문법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문법을 같은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둘째, 모국어를 설명하는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의 체계는 달라야 한다는 견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자 하며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해야 할 교육문법의 주요 범주와 체계도 달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 문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각 교육문법은 교육에 필요한 표준이 되는 체계를 가진 표준문법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어 문법 전체 체계를 제시하는 교사문법이 되어야 하며 교육 목적에 따른 문법 내용이

<sup>\*</sup> 이 논문은 2019년도 상지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sup>\*\*</sup> 상지대학교 한국어문학과 부교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표준문법이 있다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교사는 추상적인 지식 체계와 함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으로 문법의 내용이나 설명 방식 등을 교수 방법과 연결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표준문법 안에서도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구분이 필요하다. 교육문법 안에서 표준문법은 정리된 체계가 중요하다면 학습자문법은 체계도 중요하지만 각 학습 단계에 맞는 위계성이 더 중요하다. 즉, 어떤 문법 내용에 대해 가르칠 시기와 교수 방법에 따른 설명 방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학습자문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문법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출간된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 함께 제시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등에서는 이미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문법과 한국어교육문법이 교육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같거나 달라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한국어교육문법 안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교육용 교육문법의 중요성 때문에 논의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사 문법을 가지고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육문법, 국어교육문법, 한국어교육문법, 표준문법, 교사문법, 학습자문법

## 1. 서론

본고는 교육문법<sup>1)</sup>의 틀 안에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교육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어교육문법을 교사를 위한 문법 지식과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용 문법으로 나누어 살피고자 한다. 최근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 문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유사 문법을 문법 체계 안에서는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교사문법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수법 안에서는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학습자문법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 문법도 한국어교육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구별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를 보면 한국어 교육 문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두 논의로 정리가 된다. 첫째,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문법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문법을 같은 체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 둘째, 모국어를 설명하는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의 체계는 달라야 한다는 견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자 하며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해야 할 교육문법의 주요 범주와 체계도 달라야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 문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각 교육문법은 교육에 필요한 표준이 되는 체계를 가진 표준문법이 필요하고 이는 한국어 문법 전체 체계를 제시하는 교사문법이 되어야 하며 교육 목적에 따른 문법 내용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표준문법이 있다고 해서 교육 현장에서 문법 교육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다. 교사는 추상적인 지식 체계와 함께 학습자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으로 문법의 내용이나 설명 방식 등을 교수 방법과 연결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

1) 언어 사용자의 인식 체계에 추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언어 규칙인 문법은 크게 학문문법과 교육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이금희(2018),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에서의 교육문법」,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pp.49-79.]

국어 교육을 위한 하나의 표준문법 안에서도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구분이 필요하다. 교육문법 안에서 표준문법은 정리된 체계가 중요하다면 학습자문법은 체계도 중요하지만 각 학습 단계에 맞는 위계성이 더 중요하다. 즉, 어떤 문법 내용에 대해 가르칠 시기와 교수 방법에 따른 설명 방식이 함께 제시되어야 학습자문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습자문법은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제시가 필요하다. 현재 출간된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 함께 제시된 경우가 많다.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어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 등에서는 이미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어교육문법과 한국어교육문법이 교육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같거나 달라야 한다는 논의는 많았지만 한국어교육문법 안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교육용 교육문법의 중요성 때문에 논의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유사 문법을 가지고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2. 한국어 교육과 교육문법의 개념

한국어 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문법 관련 연구 또는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들의 의견이 크게 두 견해로 나타난다. 먼저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을 같은 체계로 구성해야 한다는 견해와 학교문법의 체계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달라야 한다는 견해다. 전자의 입장은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교육 대상에 따라 교수법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내용 분류와 체계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문법의 체계가

다르게 되면 문법 체계 차이에 따른 학술 용어의 차이가 생기고 이로 인한 혼란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언어권에 따라 외국인 학습자를 고려해서 문법을 기술한다면 외국인 학습자가 구사하는 언어마다 대응하는 각각의 한국어 문법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재일<sup>2)</sup>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문법 개발은 현행 학교문법의 체계, 기술 방법 그리고 용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문법 체계 및 용어를 한국어 교육을 위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국어교육의 문법과는 교수법 차이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민현식<sup>3)</sup>은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어교육문법과 학교문법은 동일한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4)</sup> 권재일처럼 민현식도 교수법 차원이나 교육과정 구성의 차원에서는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이 다를 수 있다고 하였다.

최웅환<sup>5)</sup>은 교육이라는 공통된 틀 안에서 그리고 내용 요소나 그 체계의 대상이 한국어의 말과 글이라는 점에서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공통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학교문법과의 관련성 속에서 교육적 지위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법은 학교문법에 근간하는 문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모국어

2)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pp.10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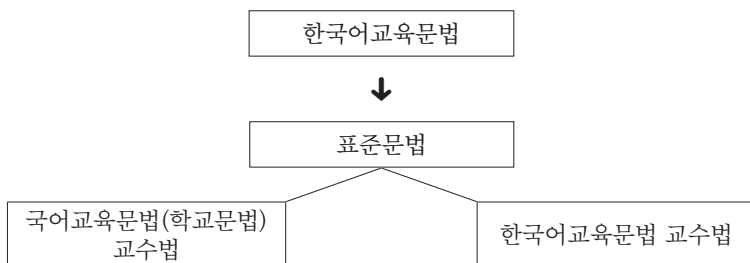
3)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7~141.

4)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7~141.

5) 최웅환(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학교 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과 융합> 25, 문학과언어연구회, pp.203~226.

화자를 위한 학교문법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문법이 문법 체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관점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표 1>처럼 정리할 수 있다.

<표 1>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 동일 체계 관점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이 달라야 한다는 주장을 보면 학습 목표와 학습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육하고자 하는 문법의 체계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유정<sup>6)</sup>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에 관한 개념에 대해 외국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용 문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백봉자<sup>7)</sup>는 국어 문법의 목적이 국어의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는 것이라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그렇게 찾아낸 규칙과 질서를 바탕으로 올바른 한국어를 생성해 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 모어에 따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

6)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36.

7)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 피동/사동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14~445.

도 하고 있다.

서정수<sup>8)</sup>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 체계와 용어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문법의 체계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문법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성원<sup>9)</sup>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학문문법이나 학교문법의 축소판이 아니라, 한국어의 현실을 반영하고 교사와 학습자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교육 환경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재옥<sup>10)</sup>은 모어로서의 국어 문법 체계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문법 체계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한국어에 대한 추상적인 문법 지식이 아닌 각 문법 형태들의 구체적인 의미와 형태, 통사, 화용적 기능을 제시하여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법 체계로 정의하였다.

우형식<sup>11)</sup>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한국어 문법의 특징이 드러나면서도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고 간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의 특징으로 덩이 형태 학습, 문형을 활용하는 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8)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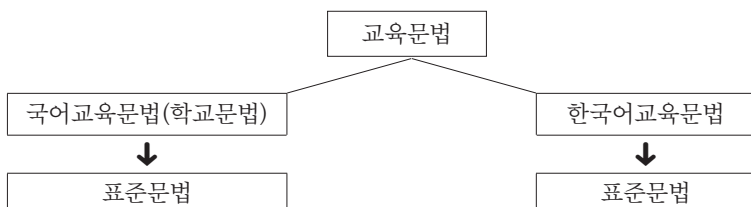
9) 방성원(2003),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문법의 개발 방향-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어문연구> 3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69~295.

10) 김재옥(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pp.43~70.

11) 우형식(2010), 「한국어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pp.236~266

한송화<sup>12)</sup>는 국어 문법에서는 형태소와 단어, 형태론과 통사론, 단어와 문장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범주이지만 기능적인 접근이 필요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능이 동일하다면 다른 문법 범주라 하더라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의 문법 체계 분리 주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된다.

<표 2> 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 체계 분리 관점



본고에서는 국어교육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의 체계는 각각의 기준이 되는 표준문법이 설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국어교육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문법은 체계부터 달라야 한다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교육 목적과 교육 대상이 다르면 교육해야 할 내용과 교수 방법이 달라지고 그것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을 따르고자 한다.

12)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367~379.



<표 3> 관련 용어

용어	내용
학문문법	언어학자의 머릿속 언어를 분석하고 체계화한 문법
교육문법	교육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교육적 가치를 우선하여 체계화한 문법
표준문법	특정 목적에 따라 문법 체계의 표준을 이룬 문법
학교문법	내국인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규범적인 사고로 그 문법 체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문법
한국어교육문법	외국인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구조와 기능, 의미를 습득하여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문법

이에 이금희<sup>13)</sup>는 교사는 추상적인 지식 체계와 함께 학습자가 언어 사용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유사 문법 표현과의 비교 내용이나 효율적인 설명 방식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유사 문법의 교사문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교수 방법 측면에서 학습자문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유사 문법의 측면에서 필요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 3. 한국어 교재의 문법 제시 형태

각 문법 사전이나 한국어 교재에는 유사 문법과 관련하여 제시 방식이나 비교 대상으로 묶인 항목 및 기술 내용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문법 사전을 기술하면서 유사 문법을 고려하여 기술한 부분도 있지만 그와 함께 화용 정보 및 상황에 따른 추가 표현 등을 모두 이 영역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이 때 교사를 중심에 두고 기술하였는지

13) 이금희(2018), 앞의 논문, p.49.

학습자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하였는지에 따라 기술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표 4> ‘은/는’의 문법 제시 양상

교재	제시 내용	대상
교재A	은/는 문장 예문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내용 기술
교재B	은 [는] -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조사. 문장 예문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도 내용으로 기술
교재C	은/는 - 이름이나 직업 등을 사용할 때 사용해요. 문장 예문	학습자를 중심으로 내용 기술

한국어 교재의 문법 제시를 보면 학습자와 교사 사이에서 누구를 위한 내용으로 문법 정보를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던 부분들이 보인다. 먼저 교재A와 교재B의 표제어 제시 방법을 보면 교재A는 문법 항목 ‘은’과 ‘는’을 하나의 표제어로 ‘은/는’으로 제시하여 형태적 정보를 표제어에서부터 주고 있다. 교재B는 ‘은’을 대표형으로 표제어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는’에 대한 정보도 대표형의 이형태로 따로 제시하고는 있다. 그리고 두 교재 모두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법을 문장 예문을 통해 ‘은’과 ‘는’의 사용상의 차이를 문장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 두 제시 방법 중에서 학습자에게 더 좋은 제시 방법은 무엇일까? 또는 두 제시 방법 중에서 교사가 교육하기에 더 좋은 제시 방법은 무

엇일까? 이러한 고민이 문법 사전의 표제어 제시와 한국어 교재의 문법 표제어 제시 방법의 차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를 중심에 둔 문법 항목에 대한 내용 기술과 학습자를 중심에 둔 문법 항목 내용 기술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개념 정리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문법 정보 제시 방법에 있어서도 교재A는 문법 정보를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 교재B는 의미 정보와 통사 정보를 함께 제시해 주고 있다. 교재C는 기능 중심의 의미 정보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재A는 문법 정보를 교사가 문장 예문을 통해 제시하기를 원하는 교재일 것이고, 교재B는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정보를 친절하게 교재 내에 담아준 것이다. 교재C는 학습자를 고려한 언어 사용에 중점을 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사에게도 문법 정보를 통해 교육의 목표와 범위를 전달하고 있다. 세 교재 모두 대상과 전달 목적에 따라 장점과 단점이 있는 제시 방법이기 때문에 교재의 사용 목적 또는 학습 대상에 따라 기술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에 대한 논의는 결국 문법 항목에 대한 내용 제시 방식의 논의와도 이어진다.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에 대한 논의를 보면 교수 방법에 논의가 같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문법 항목의 제시 내용 및 제시 형태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하고자 한다.

#### 4. 한국어 유사 문법의 제시 형태

한국어 교육에서 유사 문법<sup>14)</sup>은 유사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위계화가 필요한 문법 항목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교육적 관점 안에서 살필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 교육적으로 보면 유사 문법은 교육문

14) 유해준(2015)은 문법 항목 사이 발생하는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초래될 수 있는 문법 항목들의 개념을 ‘유사 기능 문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법을 ‘유사 문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법의 필요성과 교육문법의 기술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사 문법이 문법 자체의 유사성으로 인해 학습자가 혼동할 수 있고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문법의 사용적 측면을 고려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유사 문법 항목이 제시된 한국어 교육 사전이나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사전이나 지도서마다 집필 의도나 특성이 보인다. 국립국어원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sup>15)</sup>에서는 주로 ‘보충·심화’에서 유사 문법을 포함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백봉자의 한국어 문법 사전<sup>16)</sup>은 ‘붙임’에서 예외적인 특징으로서 유사성에 의한 학습자 오류 중심으로 유사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두 문법 사전 모두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희자·이종희의 어미·조사 사전<sup>17)</sup>은 유사 문법과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여 도움말로 제공하고 있다.<sup>18)</sup> 백봉자의 한국어 문법 사전처럼 이희자·이종희의 어미·조사 사전도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희자·이종희의 어미·조사 사전에서도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를 설정하지는 않았다. 유사 문법 용어가 학술 연구에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의 문법, 유사 기능의 문법 등으로 나타났다. 유사 문법이라는 용어가 문법 사전 내용에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국립국어원 교수학습센터의 문법과표현<sup>19)</sup>이다. 학습자들이 자주 일으키는 오류들을 문법 사전에서도 ‘유사 문법’ 영역으로 구별하여 제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현화의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sup>20)</sup>은 ‘관련 표현’ 영역을 따로 두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문법을 기술하였고 강현화의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sup>21)</sup>에서는 유사 문법을 따로 모아 정리하였다.

15)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

16) 백봉자(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하우출판사.

17) 이희자·이종희(1999),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한국문화사.

18) 이희자·이종희(2010), 『어미·조사 사전; 전문가용』, 한국문화사.

19) 국립국어원 교수학습센터의 문법과표현은 [양명희 외(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조사·표현)』, 집문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 강현화(2016),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 한글파크.

21) 강현화(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이처럼 문법 사전 안에서 유사 문법은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체계 중심의 교사문법과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학습자 오류 중심의 학습자 문법이 함께 기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법 사전의 주 독자는 교사들이다. 하지만 교사는 학습자에게 이 문법 항목들을 설명해야 하기에 최근의 문법 사전은 교사와 학습자에 전달하고자 하는 두 측면의 문법 내용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5> 문법 사전의 문법 항목 기술 내용<sup>22)</sup>

이	은
<p>이 [조사] [초급]</p> <p>-어떤 동작을 하는 <b>주체</b>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b>대상</b>을 나타내는 조사.</p> <p>-(명사에 붙어) 어떤 동작을 하는 주체 또는 어떤 상태에 있는 대상을 나타낸다.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p>	<p>은 [조사] [초급]</p> <p>-문장에서 <b>주제</b>임을 나타내거나 <b>대조</b> 및 <b>강조</b>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p> <p>-(명사나 부사어, 일부 연결어미 또는 합성동사의 선행 요소에 붙어) 주제임을 나타내거나, 둘 이상을 대조하여 각각을 말할 때, 행위나 상황 자체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p>

<표 5>의 문법 사전에서 문법 항목에 대해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교사를 중심에 둔 문법 기술 내용이다. 유사 문법이라는 영역이 문법 사전에 드러나기 전까지는 교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문법 내용 지식이 문법 기술의 중심이 되었다.

<표 6> 유사 문법 항목의 문법 사전 기술 내용<sup>1</sup>

<p>‘이/가’는 이야기(담화) 속에서 하나의 주체(대상)을 가리키고, 은/는’은 선행 명사가 포함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가 있다.</p>
--

<표 6>은 학습자에게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알아야 할 정보를 의미

22) 국립국어원 교수학습샘터 한국어문법과표현 ‘이’와 ‘은’ 문법표현 내용 인용

적 통사적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표 6>은 ‘이/가’와 ‘은/는’의 학습자 오류를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교사가 알기를 원하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다. <표 6>에서는 문법의 내용과 함께 교수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표 7> 유사 문법 항목의 문법 사전 기술 내용<sup>23)</sup>

이	은 <sup>1)</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문장의 주어 위치에 온다.</li> </ul> <p>예) 영희가 반장입니다. (o) 영희는 반장입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 자리에만 온다.</li> </ul> <p>예) 빵이 맛있다. 영희가 오늘 학교에 안 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 자리뿐 아니라 목적어, 부사어 자리에도 온다.</li> </ul> <p>예) 나는 빵은 먹는다. 영희는 오늘 학교는 안 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없다.</li> </ul> <p>예) 철수가 그 사실을 알고 영희가 그 사실을 모른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조(중립적 배제)의 기능이 있다.</li> </ul> <p>예) 철수는 그 사실을 알고 영희는 그 사실을 모른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화제를 도입할 때 쓴다.</li> </ul> <p>예) 옛날 옛적에 한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에서 말한 것을 다음 문장에서 다시 말하여 문장의 주제를 나타낼 때 쓴다.</li> </ul> <p>예) 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초점이 체언에 있을 때 쓴다.</li> </ul> <p>예) 제가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이 김진수가 아니라, 제가 김진수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초점이 서술절에 있을 때 쓴다.</li> </ul> <p>예) 저는 김진수입니다. (o) (저 사람은 박아영이고 저는 김진수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포절에 사용될 수 있다.</li> </ul> <p>예) 그 과자는 {철수가 먹던} 것이다. (o) 나는 {수지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포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li> </ul> <p>예) 그 과자는 {철수는 먹던} 것이다. (x) 나는 {수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다. (x)</p>

23) 양명희 외(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조사·표현)』, 집문당.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조사이므로 다른 격조사와 결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li> </ul> <p>예) 교실에서 조용히 해야 해요. (x) 철수에게는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이므로 격조사와의 결합이 비교적 자유롭다.</li> </ul> <p>예)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요. (o) 철수에게는 국어사전이 많이 있다. (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하지 않는다.</li> </ul> <p>예) 조금이 알겠습니다. (x) 먹고가 싶지만 먹지 않아요. (x)</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부사, 어미와 결합한다.</li> </ul> <p>예) 조금은 알겠습니다. (o) 먹고는 싶지만 먹지 않아요. (o)</p>

<표 7>을 보면 두 문법 항목의 비교와 그에 대한 문법 정보를 통사 정보와 함께 문장 예문으로 보여 주고 있다. 교사에게 필요한 언어 사용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어교육용 문법 사전의 역할이 교사만을 위한 내용에서 학습자를 고려한 내용도 포함한 사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내용들도 학습자에게 교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기에 교사에게 필요한 정보지만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법 내용을 함께 고민해 주는 사전으로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연구자들의 개별 연구에서 말하는 유사 문법 항목은 주로 의미나 기능이 유사한 문법 항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한국어 교육용 사전에서는 의미뿐만 아니라, 형태적으로 유사한 부분 그리고 반의 관계, 자주 틀리는 표현까지 학습자가 오류를 낼 수 있는 정보들을 교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유사성에 대한 부분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할 지식이다. 여기에 유사 문법은 위계화가 함께 제시되어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기에 교사에게는 유사 문법의 등급 정보도 함께 필요하게 된다. 유사하다는 개념을 교사는 의미 정보, 형태 정보, 통사 정보로 필요 지식을 정리하게 되지만 학습자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전달하기 위한 구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전에서는 유사한 문법 항목으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 다른 사전에서는 관련어 정도로만 언급되거나, 혹은 아예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으로 나누어 제공해 준다면 교사 입장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대한 부

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유사라는 관점에서 ‘-어서’, ‘-으니까’, ‘-기 때문에’를 기술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교사에게 필요한 문법 체계 중심의 기술이다.

<표 8> 유사 문법 비교 내용1

-니까	-어/아/여서	-기 때문에
1. 화자 개인의 생각이나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한 이유가 된다. 2. 선행절에는 완료형 어미 ‘-었-’을 쓸 수 있다. 3.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싶을 때 쓴다. 4. 후행절의 종결어미로 ‘-ㅂ시다, -ㅂ시오’를 자주 쓴다. 5. ‘-으니까’ 다음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는 쓰지 않는다.	1. 일반적인 사물의 현상이나 변화로 생기는 것으로 선행절은 후행절의 원인이 된다. 2. 일반적으로 선행절에는 시상어미를 쓰지 않는다. 3. 대체로 이치를 따지는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일반적인 원인을 말할 때 쓴다. 4. 후행절의 종결어미로 ‘-ㅂ시다, -ㅂ시오, -ㄴ까요?’는 쓰지 않는다.	1.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2. 뒷 절에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쓰일 수 없다. 3. ‘-과거 -었-’과 결합한다.

의미적으로는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형태·통사적으로는 결합정보와 제약 정보를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결국 일차적으로 유사하다는 개념의 출발은 아래처럼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교실 현장에서는 통사 제약의 일치 여부가 교육 내용을 나누는 기준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유는 학습자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공통점이 아닌 차이점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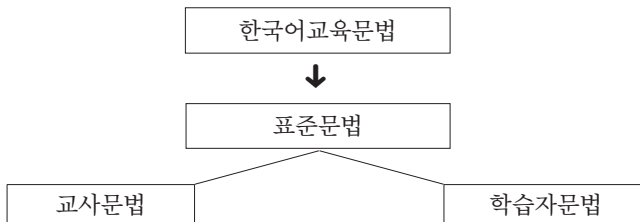


<표 9> 유사 문법 비교 내용<sup>24)</sup>

-어서1)	-으니까1)	-기 때문에
· 어떤 일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낸다.		
· 과거 ‘-었-’과 결합하지 않는다. 예) 비가 <u>왔어서</u> 여행을 취소했다. (x)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u>왔으니까</u> 여행을 취소했다. (o)	· 과거 ‘-었-’과 결합한다. 예) 비가 <u>왔기 때문에</u> 여행을 취소했다.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u>와서</u> 여행을 <u>취소</u> 하자. (x)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있다. 예) 비가 <u>오니까</u> 여행을 <u>취소</u> 하자. (o)	· 뒤 절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이 올 수 없다. 예) 비가 <u>오기 때문에</u> 여행을 <u>취소</u> 하자. (x)

<표 8>과 <표 9>의 두 기술 방식 모두 유사 문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표 9>가 학습자에게 제공할 문장 예문이 있다는 점에서 친절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내용만으로 학습자를 위한 문법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으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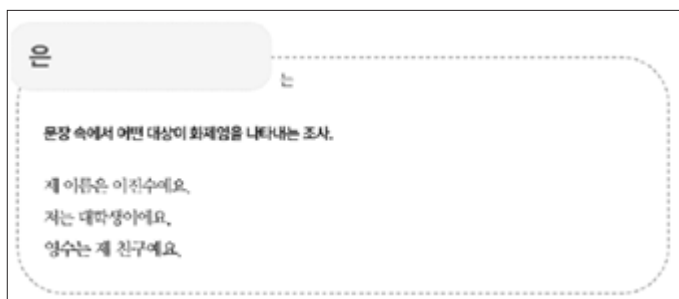
<표 10>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관계



한국어교육문법의 논의에서 표준문법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표준문법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24) 양명희 외(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조사·표현)』, 집문당. 인용.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어교육문법의 문법 체계를 국어교육의 학 교문법과 달리 기술하는 것이 문법 사전이나 문법서에 많이 반영되어 왔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또한 이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되어 왔고 이런 고민 안에는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 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재

앞에서 살핀 보조사 ‘은/는’은 한국어 교재에서 <그림 1>처럼 문법 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문법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의 미 정보와 형태·통사 정보로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술한 내용이 다. 교재의 문법을 보면 문법에 대한 정보에서 교사에게 주는 정보와 학습자에게 주는 정보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고 교사는 교재에 제시된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하는 문법 지식 내용과 교수할 내 용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부분을 교사용 지도서를 통해 살펴보 자. <표2>를 보면 문법 내용에 대해 교수 방법 위주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b>[정보]</b>		
▶ <b>형태 정보:</b>		
	받침 ○	받침 X
명사	은	는
①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은’, 명사 끝음절에 받침이 없으면 ‘는’을 쓴다.		
▶ <b>주의 사항:</b>		
① ‘은’은 문장에서 ‘주제나 화제’, ‘강조’, ‘비교·대조’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본 단위에서는 ‘주제’의 의미를 학습한다.		

<그림 2> 중학생을 위한 표준한국어 교사용 지도서

교사문법을 학습자문법으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에는 문법 항목의 복잡성 및 학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위계화 문제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유사 문법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교육문법의 표준문법 논의에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개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 오류는 문법 사용의 유사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문법 항목들의 등급 선정에 교육적 역량을 많이 집중해 왔다. 이제는 한국어 교육에서 표준문법의 필요성과 함께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으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표준문법을 나누어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문법 사전, 한국어 교재, 교사용 지도서 등에 나타나는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 5. 결론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 방안 또한 별도의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국어 교육에서는 문법을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형태로 학습자문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국어 지식이 학습자에게 교수되어야 할 지식이기기는 하지만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은 아니라는 관점에 본 연구자도 동의하며 논의를 시작하였다. 단지 한국어 교육에서는 학습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문법에 대한 고민이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한 용어를 학습자문법이라는 틀 안에 두지 않았을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문법을 교육문법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하기 위해 유사 문법의 제시 방법을 문법 사전과 한국어 교재 안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유사 문법 제시 형태를 통해 교사 문법과 학습자문법이 문법 사전, 한국어 교재, 교사용 지도서에 어떻게 다르게 기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아직은 한국어 교육 문법 체계 안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교사문법과 학습자문법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 참고문헌

- 강현화(2016), 『한국어 교육 문법: 자료편』, 한글파크.
- 강현화(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 연구』, 한글파크.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1』, 커뮤니케이션.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문법2』, 커뮤니케이션.
- 권재일(2000), 「한국어 교육을 위한 표준 문법의 개발 방향」, <새국어생활> 10-2, 국립국어연구원, pp.103~116.
-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9-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9~36.
- 김재옥(2007),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 체계 분석」, <한민족어문학> 51, 한민족어문학회, pp.43~70.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국립국어원.
- 김현경(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에 대한 접근 방향」, <외국어교육 연구> 22-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pp.1~22.
- 민현식(2003), 「국어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상관성」, <한국어교육> 14-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7~141.
- 방성원(2002), 「한국어교육용 문법 용어의 표준화 방안」, <한국어교육> 13-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107~125.
- 방성원(2003),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문법의 개발 방향-학교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어문연구> 31-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269~295.
- 방성원(2010), 「한국어 문법론과 한국어 문법 교육론」, <언어와 문화> 6-1,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pp.157~181.
- 백봉자(201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개정판』, 하우출판사.
- 백봉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문법 - 피동/사동을 중심으로 -」, <한국어 교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414~445.
- 서정수(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새 문법 체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1~47.
- 석주연·양명희(2013), 「한국어교육 문법 항목의 제시 형식과 교육 내용에 대한 일고찰-‘표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4, 반교어문학회, pp.51~73.
- 양명희·이선웅(2014), 「한국어교육 중급 문법·표현 항목 선정에 대한 일고찰」, <반교어문연구> 36, 반교어문학회, pp.65~92.

- 양명희 외(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초급(조사·표현)』, 집문당.
- 양명희 외(201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중급(조사·표현)』, 집문당.
- 우형식(2010), 「한국어교육 문법의 체계와 내용 범주」, <우리말연구> 26, 우리말학회, pp.236~266
- 유해준(2015), 「유사 기능의 한국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어문론집> 61, 중앙어문학회, pp.515~538.
- 이관규(1999/2007), 『학교문법론』, 월인.
- 이금희(2018), 「한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에서의 교육문법」, <반교어문연구> 49, 반교어문학회, pp.49~79.
- 이기령(2006), 「학교 문법과 표준 한국어 문법의 비교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규(2008), 「국어과의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특징 비교 연구」, <이중언어학> 38, 이중언어학회, pp.389~417.
- 이지용(2017), 「한국어 유사 문법 항목의 선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영(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pp.73~94.
- 이희자·이중희(2010), 『어미·조사 사전; 전문가용』, 한국문화사.
- 임철성(2010), 「자국어 문법 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의 성격 비교 연구」, <문법교육> 13, 한국문법교육학회, pp.1~28.
- 최용환(200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학교 문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학과 융합> 25, 문학과언어연구회, pp.203~226.
- 한송화(2006),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새로운 문법 체계를 위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7-3,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pp.367~379.

## ■ Abstract

### Similar Grammar in Korean Language as Pedagogical Grammar

Yoo, Haejun

Discussions on the future direction of gramma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largely follow two different opinions. According to the first opinion, school grammar targeting native speakers and the grammar for teaching Korean language as a foreign language should follow the same grammar system. As per the second opinion, the school grammar system should be different from the grammar system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is study aims to elaborate on the latter view, that the major category and system of pedagogical grammar should be different between school grammar and grammar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as the subject and goals of education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Education requires standard Korean grammar. The teacher should teach the entire gamut of Korean language grammar, with contents based on the goals and needs of the particular education. However, standard Korean grammar is not always directly related to the needs of grammar education in the education field. Teachers should be aware of abstract knowledge system, grammatical contents, or explanation methods that could be used by learners in the connection with teaching methods. For this, the single standard Korean grammar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s to be divided into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Within the framework of pedagogical grammar, the system of grammar is important for the standard Korean grammar, while the hierarchy suitable for each learning stage is important for learner's grammar. In other words, to transform into learner's grammar, the explanation methods according to the teaching method and period to teach a certain grammatical content should be presented simultaneously. For this, the learner's grammar should be in a simplified form by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learners. Most of the current Korean language textbooks and teachers' guidebooks present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together. Even though terms like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are not used yet, they have been used separately. There have been many discussions on whether school grammar and grammar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hould be the same or different within the frame of pedagogical grammar. However, because of the focus on the necessity of standard Korean grammar for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education, discussions on how to present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within the grammar for 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have been delayed. Thus, this study discusses teacher's grammar and learner's grammar on the basis of similar gramma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eywords: Pedagogical Grammar,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mmar, Grammar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tandard Korean Grammar, Teacher's Grammar, Learner's Grammar



이 논문은 2021년 2월 2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1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3월 19일에 심사  
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유해준: yoohaejun@sangji.ac.kr